

# SK, 회사채 2500억원 발행

2011년 3번째로 차환 목적 ... 2012년 2월 회사채 만기

SK가 12월 셋째주에 회사채 2500억원을 발행할 예정이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12월12-16일 회사채 발행계획이 총 19건이며, SK의 2500억원을 포함해 1조9842억원에 달할 것으로 집계됐다고 12월9일 발표했다.

일반무보증회사채가 14건 1조750억원, 금융채 3건 1000억원, 자산유동화증권(ABS) 2건 8092억원이다.

자금용도는 운영자금 1조3672억원, 차환자금 6170억원이다.

투자협회 관계자는 “12월 둘째주 발행계획인 17건 1조980억원에 비해 발행건수는 2건, 발행금액은 7862억원 증가한 것”이라며 “12월 넷째주에는 대기업의 ABS 발행으로 회사채 발행 물량이 2조원에 육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SK는 “조달한 자금을 차환과 일부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K의 회사채 발행은 2011년 들어 4월과 8월에 이어 3번째이며, 2012년 2월27일이 1000억원의 회사채 만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12/09>